

새로운 전북 위해 새출발

김관영 도지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민선8기 전북도정이 새로운 전북을 향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해입니다. 변화와 희망의 기운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노력, 땀과 눈물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출발점은 전북 경제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도는 기업이 들어오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전북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매력적인 투자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전북발전을 견인할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캠버리와 아데미스터스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립니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조세제 한특례법 통과,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 등 새만금 발전의 골든타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북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기업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

두가 열정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도민 여러분, 전북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전북은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도민 여러분을 만나면서 얻은 확신입니다. 도민 여러분을 믿고 저는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앞장서 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정의 혁신, 도민의 협력, 전북의 자신감이 어우러진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우리의 도전은 분명 도민 성공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새해 새로운 전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도민들의 든든한 대변자 될 것”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180만 도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풍요와 번영이 넘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종식으로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지역 상권도 회복돼 전북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 같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는 새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도민의 대변자가 될 것입니다. 도민의 신뢰 속에 강한 의지를 확립하고,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행정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날카로운 예언이 없도록 현장을 찾아 눈으로 확인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북발전을 도모할 과정은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해법을 찾겠습니다.
도정과 교육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을 주도하겠습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 전북 미래를 찾고 지키는 일은 물론 전북아카데미, 대학과 새만금세계캠버리대회 성공개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완전한 재가동 등 세계 속의 전북의 위상을 확보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문성을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갈수록 행정은 전문화되고 복잡

해지면서 의회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쌓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은 물론 의원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토론회와 세미나, 공청회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는 언제나 도민께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의원 40명 모두는 항상 낮은 자세로 도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도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와 방향의 중심은 180만 도민입니다. 정책 결정의 최우선순위는 도민입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의회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기가 오더라도 굳건히 시민과 함께 견뎌낼 것”

강임준 군산시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시장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 민선 7기에서 민선 8기로 전환되며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한결같은 꾸준함과 성실함, 투지와



열정으로 시장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민선 7기를 사업의 씨를 뿌리고 싹 틔운 시기라고 한다면 제 앞에 놓인 민선 8기의 4년의 세월은 넉넉한 수확을 위해 어린 싹을 잘 길러야 하는 인고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민에게는 역전의 명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겹고 녹록치 않은 시기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시민 여러분과 대동단결하여 이 모든 어려움

을 극복하고 가을 들뜬의 여문 황금 벼이삭이 여름내 뜨거운 별과 장마와 태풍을 견뎌낸 결과물인 것처럼 위기가 오더라도 굳건히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견디고 오직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적공지담(積功知答)’은 불후(不墮)라 하였습니다. 1,600명의 공직자와 함께 올 한해 민선 8기의 터를 닦고 탐을 쌓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시장 운영에 매진하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검은 토끼처럼 군산 대도약을 향해 힘차게 뛰어오르는 한 해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시작, 희망 정읍 향해 중단없이 정진”

이학수 정읍시장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정읍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읍시장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시는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비전으로 정읍 발전



과 시민 행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 2개, 우수 21개 등 모두 38개(2022년 12월 23일 기준)의 수상 실적을 거두는 등 여러 분야에서 앞찬 성과를 거뒀습니다. 위기 때마다 강한 지력을 보여주시는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번창과 풍요를 상징하는 계묘년 새해에도 정읍시는 새로운 시작 희망의 정읍을 향해 중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시민 정읍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정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망의 정읍을 향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갑시다. 2023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곁에 더 큰 행복과 성취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미래 여는 전북교육’

서거석 교육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전북교육 대전환을 기대하며 전북교육의 새로운 길에 함께 해 주신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뜻을 올리고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향해 본격적인 항



해를 시작합니다. 전북의 아이들 모두가 저마다의 꿈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과 협치로 도민 여러분께 희망을 주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2023 계묘년 새해, 검은 토끼의 높은 뿔처럼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모두가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년전주 위상·자부심 되찾기 위해 직진”

우범기 전주시장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우범기입니다.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펜데믹에 이은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전주는, 전주 대변학을 간절히 바라는 전주시민 한 분 한 분의 빛나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기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한 경제를 통해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재도약한다는 포부를 안고 오랫동안 전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물고 바닥을 다져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습니다.
2023년 전주는, 새롭게 떠오른 태양과 함께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향한 전주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뜻을 담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규제개혁과 광역도시 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광역도시로의 대전환, 탄소와 수소, 드론 등 3대 주력산업 고도화, 든든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강한 경제, 역사와 전통, 현대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그리고 전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



속 신바람 복지 실현을 목표로 도시 곳곳을 땀방울로 적셔 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구단위계획 등을 본격적으로 개정하는 등 전주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전주시정연구원을 개원하여 전주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이 반영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전주 천년 미래를 여는 대변학의 기틀을 굳건히 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야구장 철거를 시작으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며, 석면 등 유해물질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해 온 옛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를 시작으로 민간투자자와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1종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이 있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하여 살기 좋은 100만 광역도시 성장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역의 싹쓸이이라 불리는 기업 활성화에 숨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전 주형 청년취업지원 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왕의공원 프로젝트를 통해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많은 역사·문화 자산을 집약하여, 전주가 세계에서 주목하는 체류형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숱한 격동의 세월을 관통하면서 이 땅 전주를 천 년 동안 자랑스럽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 땅을 지키고 살아갈 여러분은 실로 위대하고 현명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에 내딛기 위한 열정과 인내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들딸, 그리고 후손들이 대대손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하는 땅, 시대를 뛰어넘는 자랑스러운 자부심 넘치는 그런 땅을 만들어 가는 데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전주시는 당당했던 천년전주의 위상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서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면서 직진해 갈 것입니다. 혼자 가면 길이 멀어집니다. 함께 가면 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역사의 대서사에 함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새 시대 열 것”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2023년 계묘년(癸卯年)의 해가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밝은 내일을 향한 첫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3고 현상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과 연대의 힘으로 전주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소·탄소 산업과 드론 산업 등 미래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다지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조성에 박



차를 가해왔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릴 기를 기대하며, 전주시의회 또한 자치분권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번이 하시는 모든 일과 원하시는 소망에 크나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전과 기회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멈추지 않고 도전하며 부단히 발전하는 새 날들이 되기를 희망하며, 전주시의회는 끊임없는 일진월보(日進月歩)의 자세로 최고의 한 해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번이 하시는 모든 일과 원하시는 소망에 크나큰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정헌을 익산시장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계묘년(癸卯年)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지역과 시장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2022년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 익산의 잠재력을 가감 없이 드러낸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외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지만 수많은 위기의 높은 파고에도 우리는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헤쳐왔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시민과 행정의 굳건한 믿음으로 익산 최초의 3선 시장을 만들어내셨고, 숱한 악조건 속에서도 1,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저력을 뽐냈습니다. 또,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은 정부의 지원 축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국 최대 혜택을 유지했으며, 청년 문제의 맥을 정확히 짚어 도출해낸 익산의 청년정책은 젊은 층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온전히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민선 8기가 본격 시작되는 2023년에는 민선 6기와 7기를 거치며 공들여 추진해 온 대규모 미래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올리고, 도시의 외형적인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무게를 두고 익산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키우고자 합니다.
올 한해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더 크게 깊게 들으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익산 건설에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익산시의 합찬 발전에 시민 여러분 모두가 애정과 격려로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찬 기운이 내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